

이종진

본회 연구위원, 목사
서울장로회신학교 교수, 교회사
이 글은 제 8 회 기독교 학술 발표
회에서 발표한 것이다.

교회사 서술에 관하여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과거의 사실들을 역사책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우리는 과거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서술된 역사를 대하고 있다. 이 점에서 교회사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의 교회사 책을 통해서 지난 날의 교회의 모습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서술된 역사의 제한점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과거 역사를 새롭게 인식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제의 필요성

교회사를 서술하는 데는 몇 가지 전제들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라토레트(Kenneth Scott Latourette)는 “전제들 없이 역사를 쓴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¹⁾ 칼 호이시(Karl Heussi)는 그의 책 서문에서 “있는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밝히려는 노력”을 자기의 과제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다.²⁾ 그러나 자신은 교회를 “순수하게 현세적인 현상으로만 파악”하였다고 말하는 데³⁾ 이는 자신의 전제가 무엇임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맨 슈렉(Clyde L. Manschreck)은 “전제가 없다는 것은 기초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자신의 전제가 무엇임을 말한다.⁴⁾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교회사를 서술한다고 할 때, 교회사 전체에 대한 어떤 사변적 도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역사책은 역사적 사실을 탐구,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술되어야 한다. 사실탐구 이전에 어떤 사변에 의해서 도식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사실들을 수집한다는 것은 편집 의도에 의해서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실을 어떠한 위치에서 보느냐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기 위한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교회사 흐름에 대한 이해를 어떤 전제로 잡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교회사를 탐구할 수밖에 없다. 이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단순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신학적으로 세밀히 구체화된 입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교회사를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교회사 전체 진행에 대한 지식은 역사적 자료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필자는 교회사책 서문에 자신의 전제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교회사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호이시, 라토레트, 곤잘레스(Justo L. Gonzalez)⁵⁾, 케인즈(Eric E.

1) Kenneth Scott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 New York: Harpor & Row Publishers, 1975, I, p. xix.

2) Karl Heussi, Kompendium der Kirchengeschichte, 김창길 편집, 그리스도교회사 편람, 서울: 임마누엘, 1988, p. xi.

3) 위의 책

4) Clyde L. Manschreck,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Worl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4, p. 3.

5) Justo L. Gonzalez, The History of Christianity, vol. 2,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84.

Cairns)⁶⁾ 맨슈렉의 책에는 서문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워커 (Willston Walker)⁷⁾와 알란트(Kurt Aland)⁸⁾는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시작하고 있다.

3. 기독교의 역사성

교회사 서술에 필요한 전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역사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기독교의 역사를 쓴다는 것은 기독교 자체의 역사성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각 시대가 독특한 모습을 지니고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이시는 교회사 서술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발전은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성장한, 전적으로 역사적 흐름과 얽힌 세력으로 관찰될 수 있게 된 데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⁹⁾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역사 연구를 함으로 얻어지는 결론이 아니고, 연구하기 이전에 기독교 신앙 이해에서 결정하고 들어가야 할 전제이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 또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역사적, 문화적 산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기독교가 출발했다고 본다면 두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가 시간의 진행에 따라 발전한다고 보는 견해가 가능한데, 구원의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되었다고 본다면 이는 가능한 생각이

6) Earle E. Cairns, *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ie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1.

7)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4th ed., Edinburgh: T & T Clark Ltd., 1986.

8) Kurt Aland, *A History of Christianity*, 2 vols. trans. James L. Schaaf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9) Heussi, 앞의 책, p. 2.

아니다. 두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되었지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나 반응이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가능하다. 라토레트, 맨슈렉, 곤잘레스는 두번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맨슈렉은 기독교의 핵심을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Agape)'라고 정의하고, 기독교의 역사는 '그 사랑이 어떻게 받아 들여졌으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에 대한 기록'이라고 정의한다.¹⁰⁾ 라토레트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 즉 복음과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의 종합'이라고 정의한다.¹¹⁾ 곤잘레스는 여러 다양한 상황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노력했던 기록을 기독교의 역사로 본다.¹²⁾

위의 정의들은 만족스러운 것이 못 되는데 교회사의 서술내용들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없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다. 또한 기독교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행동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었나 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필자는 교회의 역사를 '신앙공동체가 각 시대를 거치면서 경험한 내용에 관한 기록'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기독교는 개인적으로 내면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이는 기독교 역사의 서술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반복적이고 경험의 다양성만이 존재할 뿐,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록이나,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나오는 인간 내면의 갈등은 오늘날의 기독교인이 읽어도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내면생활을 위한 권면인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애독되어진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신앙공동체는 각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 내부에서 그리고 교회 외부와의 관계에서 각각 다른 문제에

10) Manschreck, 앞의 책, p. 5.

11) Latourette, 앞의 책, p. xx.

12) Gonzalez, 앞의 책, I, pp. xvi-xvii.

붕착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해 나가면서 어떤 전통이 형성되고,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고,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터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앙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성취하려는 목표와 거기서 벗어나고 있다든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지칭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직접 간접으로 신앙 공동체가 처한 사회와 그 시대의 사고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교회의 역사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근거는 교회가 처한 사회가 또는 문화적 배경이 변한다는 데 있다고 본다. 인류의 사회가 일차적으로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가운데 거하는 교회도 이차적으로 역사성을 띠게 된다. 사람들의 생각이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들이 종교와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바뀌기 때문에, 교회와 사회의 관계도 바뀌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정의된 그것의 역사이거나 구속의 역사와 동일시 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보이는 교회가 곡식과 가라지가 섞인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곤잘레스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과연 이러한 교회를 기독교 회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 이유를 성령이 죄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¹³⁾

그렇지만 이는 충분치 않은 설명이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판단하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교회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독교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즉 기독교 신앙과 무관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이를 분별해 낼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과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가정하고 역사를 이해하여야 될 것이다. 순수한 신앙공동체의 이야기만을 교회 역사로 쓸 수는 없다.

13) 위의 책, p. xvi.

이 땅에서는 그것을 예리하게 구별할 수 없고, 또한 현재에도 그런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혼합된 상태로서의 교회의 역사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4. 하나님의 섭리

기독교는 교회사를 포함해서 인류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들의 활동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믿는다. 이러한 생각을 기초로 보통 기독교인들은 교회사를 배우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외형적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내면상태를 다 알 수 없듯이, 교회사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사건들의 내용들 뿐이지,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근원적인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을 것이라고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다. 마치 개인의 구속은 내면적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몇가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표정들을 보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교회사 연구를 통해서 교회사의 여정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다 알 수 없고 다만 교회가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며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5. 교회사 서술의 과제

교회사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가를 결정해야 교회사를 서술할 수 있다. 첫째로, 교회사는 최초의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교회 모습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시도해야 하며 각 시대의 교

회 모습을 묘사해야 한다. 각 시대의 교회 모습이 서로 어떻게 다르며, 그런 차이를 가져온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될 것이다. 둘째로, 현재 우리에게 전달되어 내려오는 전통을 인식하고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이어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곤잘레스는 선배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성경본문과 함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충실한 증인이 되고자 노력하였던 기록을 남겨 주었다고 말한다.¹⁴⁾ 과거가 우리들 행동의 일부 요인으로 개입되어 있으므로 전통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여야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¹⁵⁾ 기독교인은 자신의 신앙 양태 전부를 절대화시킬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는데, 어떠한 것이 유산의 영향에서 온 것인지를 알 때 이를 피할 수 있다. 셋째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신앙양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한때 존재했다가 사라졌다고 해도 역사상에 존재했던 다른 신앙양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의 역사는 한 가지 신앙양태만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신앙양태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식되며 자신은 그중의 한 계통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토레트는 기독교 역사는 다양한 신앙양태 모두를 포함하여야 하며 많은 추종자를 가졌던 신앙양태만이 아니고 소수집단의 신앙양태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¹⁶⁾ 교회사는 그들이 서로 어떻게 다르며, 왜 갈라져 나가게 되었는지를 서술하여야 한다.

6. 교회사 서술의 대상

구체적으로 교회사 서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교회는 복합적인 여러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동시에 서술 대상이 된다. 필립 샤프는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그 첫째는

14) 위의 책, pp. xvi-xvii.

15) 위의 책

16) Latourett, 앞의 책, p. xv.

선교 혹은 전파의 역사이고, 두번째는 반대세력에 의한 핍박의 역사이고, 세번째는 교회 정치와 치리의 역사, 네번째는 예배의 역사, 다섯번째는 기독교적 삶의 역사 즉 실제적 도덕성과 종교의 삶, 여섯번째는 신학의 역사이다.¹⁷⁾

라트레트는 지역적 확장의 역사, 조직된 교회의 문제, 기독교 공동체 내부에서의 분열들의 역사와 이 분열을 바로 잡으며 기독교 복음의 진수인 사랑 안에서 일치를 실현해 보려는 노력들의 이야기, 자기들의 신앙을 지적으로 공식화하려는 노력들의 발전, 집단적이며 개인적인 예배의 발전, 기독교인들이 신앙 이념들을 따라 살려는 시도들, 감화력을 행사했던 인물들의 이야기, 환경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과 또한 기독교가 인류사회에 영향준 것 등이 서술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한다.¹⁸⁾

케인즈는 첫째 교회와 국가/세속적 환경과의 문제, 둘째 기독교 신앙의 전파, 셋째 핍박을 받는 것, 넷째 교회정치, 다섯째 논쟁들이 포함된다고 본다.¹⁹⁾

위에 나타난 주장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그러한 영역들이 서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러가지 영역들이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될 수는 없고, 가능한 한 어떤 맥을 잡아서 서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각 시대의 문제를 포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시도들을 연결해서 서술하고, 그것들이 어떠한 결과를 다음 세대에 남겼는가 하는 것을 서술해야 한다.

17)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8, I. pp. 6-11.

18) Latourette, 앞의 책, pp. xiv-xv.

19) Calms, 앞의 책.

7. 공정성 문제

교회사 서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공정성의 문제이다. 이는 서술이 어느 쪽에 대해서 편향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필립 샤프(Philip Schaff, 1819-1892)는 “역사가의 의무는 신실성과 공정성이라고 말하면, 편견과 당파적 열심을 버리고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작업해야 한다”고 말한다.²⁰⁾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단으로 정죄당한 파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점인데, 이점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은 아놀드(Gottfried Arnold, 1660-1714)이다. 그는 이단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품고 있는 당대인들의 증거를 권위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를 거부하고, 분파들 자신의 기록물에 의존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 그 당대에 이단이라고 여겨졌다고 그가 이단이었다고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다.²¹⁾ 우리는 이러한 예를 네스토리우스의 경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네스토리우스에게 신학적 결함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과연 그가 이단이었나 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교회사 책에서 찾아 볼 수 있다.²²⁾

오늘날의 교회사 책들이 어떤 쪽을 변증하기 위해서 저술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가톨릭 측에서 저술한 교회사 책과 개신교 측에서 저술한 책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루터에 대한 평가에서 가톨릭 측이 종교개혁 당시만큼 악평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나와 있는 가톨릭 측 교회사를 보면, 루터는 가톨릭시즘이 아닌 허상을 여러 형태로 간직하고 있었고, 그는 자꾸 가톨릭 교리를 왜곡 서술했다고 보고 있다.²³⁾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비극으로 보고 있다.²⁴⁾ 이는 개신교측이 종교개혁을 기독교의 참진리를 회복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투쟁하였다고 보고 그 안

20) Philip Schaff, 앞의 책, I, pp. 22-25.

21) Walker, 앞의 책, p. 591.

22) J. Neve,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서남동역, 기독교 교리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pp. 213-214.

23) August Franzen, Kleine Kirchengeschichte, 최석우 옮김, 교회사, 왜관: 분도출판사, 1968, p. 295.

24) 위의 책

에서 위대성을 찾는 관점과 다르다. 교회사 안에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논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공정성은 양쪽의 관점들을 다 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의 평가를 덧붙이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8. 기적의 문제

기적의 역사성에 대해서, 성서 자체에 나오는 내용들도 오늘날 문제가 되지만, 교회역사에 나오는 기적기사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근세에 들어서면서 특별히 과학 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적은 회의의 대상이 되었다. 뉴턴 이후 근세적 세계관에 의하면 이 우주는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법칙에 맞지 않는 기적이라는 것은 근세 이전의 사고로 돌리는 경향이 대체적인 대세이다. 따라서 기적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고 이를 기록했던 초대/중세 때의 교회사 책들은 비판을 받는다.²⁵⁾ 그래서 근세에 들어오면서 기적기사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이를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다. 알란트(Kurt Aland)의 경우 기독교 초기시절에 기독교가 이교와의 투쟁에서 이기게 된 이유를 교회사회생적 선교활동과 기독교 메시지를 진지하게 구현했다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²⁶⁾ 그러나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로마교회 안에 거룩한 기적의 능력이 남아 있다는 이레니우스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악한 영혼이 쫓겨나가 깨끗함을 얻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 안에 영접되었다고 말한다.²⁷⁾ 알란트는 이러한 내용은 무시하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우리는 교회사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의 역사성을 다 확인할 수도 없고, 또한 반드시 거절해야 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를 거절하는 근거는 과학적 지식인데, 과학적 지식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

25) 이상신, 서양사학사, 서울: 청하, 1984, p.160.

26) Aland, 앞의 책, I. p. 43.

27) Eusebius Pamphilius, The Ecclesiastical History, Translated by Christian Frederick Crus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9, p.487.

다. 뉴턴 시대의 과학이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곤잘레스는 초대교회 선교방법 중에 기적을 행한 그레고리 타우마투르구스(Gregory Thaumaturgus)의 이야기를 포함시키고 있다.²⁸⁾ 또한 십자군의 안디옥 싸움에서 일어난 성창(聖槍) 사건을 논평없이 서술하고 있다.²⁹⁾ 라토레트도 초대교회 시절 기독교가 확장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기적기사를 서술하고 있다.³⁰⁾ 필자가 보기에는 설령 어떤 기사이적이 사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더라도, 그 당시 사람들이 사실로 받아 들이고 있었다면 이를 서술하여야 된다고 본다. 과거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역사의 과제이고, 그러한 과거 사람들의 사고가 역사 흐름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기적이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료 비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사 저자들이 역사가로서 판단할 문제도 아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곤잘레스나 라토레트같이 서술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9. 맺는말

앞으로 새롭게 쓰여질 교회사 책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맺으려 한다. 그 첫번째는 한국에서 쓰여지는 교회사 책은 한국 기독교와 연관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쓰여져야 한다. 세계 교회사가 반드시 오늘날 한국교회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와 연결되는 전통들만 선택되어 서술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전통들과 모습들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와 연결되는 전통들은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교회사책들이 유럽과 미국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들이 관심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쓰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교회사를 저술하려는 의욕을 가져야 될 것이

28) Gonzalez, 앞의 책, I. p. 99.

29) 위의 책

30) Latburette, 위의 책, I. p.105.

다. 구미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신앙 이야기를 연구하는 것이지만 우리 동양인에게는 그들이 신앙의 선조들이기는 하지만 민족적 조상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좀더 공정한 입장에서 다룰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둘째로 교회사와 기독교 사상사(교리사)가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서술되어야 한다. 곤잘레스는 기독교 사상사를 쓰고 교회사를 썼는데 교회사에는 사상사의 내용이 너무 빈약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아리우스 논쟁이 후대에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또한 종교개혁에서 칼빈의 경우 그의 생애와 제네바에서의 활동만 간단히 나와 있지 그의 신학에 대한 설명은 없다. 곤잘레스 저술의 경우 사상사와 교회사가 한 책으로 합쳐졌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회사를 따로 배우고, 교리사를 따로 배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겹쳐지는 것이 있고, 교회사의 여러 사건들과 교리들을 연결해서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주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서술된 사상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교회사와 사상사가 통합적으로 저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교회사는 교회내의 이야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처한 사회와의 관계를 다루어야 한다. 보통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는 다루고 있지만, 정부나 정권과의 문제 외에도 사회 여러 가지 문제와의 관계도 다루어야 될 것이다. 워커는 초대교회를 다루면서 기독교와 로마정부와의 관계만 다루는데 초대교회 때의 핍박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로마제국과의 문제에서만 온 것이 아니고, 이교도들과의 경쟁, 기독교가 사회에 대해서 취한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개인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개인적인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지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이 땅의 삶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살도록 하였나 하는 것을 각각 다른 역사적 상황 속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넷째로 현재 기독교는 여러 교파들이 존재하고, 몇 가지 다른 신학유형 그리고 여러 종류의 신앙운동들이 존재하고 있다. 교회사가

어떤 교파, 신학, 신앙운동을 옹호하기 위해서 서술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는 어느 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서술되어서도 안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회사는 각각 교파의 기원에 대해서, 각 신학학파의 주장에 대해서, 신앙운동들의 특색과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아니라 각각 그들의 입장에서 서술하여, 서로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는 자기와 다른 교파, 신학, 신앙운동을 통해 관점과 시야를 넓힐 수 있다는 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들의 단점과 약점들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분열이나 논쟁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것이다. 다만 각각의 주장들을 그대로 실어주고, 저자의 입장에서의 평가를 덧붙여 주는 것이 어떤 관점을 계발하는데 학생들에게 유익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째 대중의 신앙양태, 그들이 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내용도 교회사에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신조사나 교리사가 교회사 연구의 중요한 일면이나 이것들은 신학자나 지도적 성직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일반 신도들이 어떻게 이를 이해하고, 얼마나 받아들였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의사전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일반 신도들이 신학자들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할 수도 있다. 또는 일반신도들의 관심과 생각이 신학자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신도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의식되고 있는 공감대(consensus)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는 이를 대중적이고 인기있는 설교자들, 많이 읽힌 신앙서적, 찬송, 미술작품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말하자면 교회지도자, 지도적인 신학자들의 주장, 행적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의 모습도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여섯째 교회사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역사에 대한 전제들, 각 시대 교회 모습을 평가하는 자신의 기준들을 밝히고 저술하는 것이 좋겠다. 자신의 관점없이, 평가하는 기준없이 있는 그대로, 일어난 사건 그대로를 서술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전제와 기준을 숨기는 결과 밖에 가져오지 않는다. 또한 각 시대 서술 뒤에 그 시대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덧붙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위와 같은 주장이 실제 교회사를 서술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는 제안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현재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시도가 미래를 연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되도록 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